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③

이슬람은? What is Islam?



이슬람

이슬람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예언자들이 우리 인류에게 전한 똑같은 진리의 메시지이다. 무슬림이라면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인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과 이들의 추종자들 모두가 무슬림이었으며, 그들이 섬긴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인의 종교 '이슬람' 이었다고 믿는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완성편인 것이다.

이슬람의 여섯 가지 기본 믿음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단 한 분뿐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시며 그분 외에는 누구도 예배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분은 가

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영원하시고 최고의 절대자이시며 모든 것에 초월자이시다. 누구도 그분의 신성함이나 속성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기도를 받거나 어떤 승배 형식의 예배를 받을 권리가 없다.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다. 천사들은 명예로운 창조물들이다. 그들은 빛으로 창조된 순수하고 영적인 존재들이며,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자야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육체적 욕망이나 정신적·물질적 욕구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시행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천사들의 수는 많으며 각 천사마다 특정의 임무가 부과되어 있다.

3)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서들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성서들, 예컨대 다윗의 시편, 모세의 구약, 예수의 신약, 무함마드의 꾸란을 믿는다. 꾸란은 특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예수에게 내려진 경전들을 언급하고 있다. 꾸란이 계시되기

오래 전에 이런 경전들과 계시의 일부가 이미



소실되거나 왜곡되었으며 또 일부는 벼려지거나 망각되고 등한시되었으며 혹은 감추어졌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첨삭없이 보존되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꾸란뿐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꾸란 이전의 모든 경전들과 계시들(왜곡되지 않은 최초의 순정의 것)을 믿고 있으며 그 것을 신앙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4)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을 믿는다. 그들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예수, 무함마드(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등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이자 영원한 메시지는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메시지이다. 예언자들은 다양한 민족, 여러 지역에 보내어졌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 즉 그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같았으며, 이슬람으로 일컬어졌다. 이는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근원, 즉 하나님께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정로(正路)로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동일한 목적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5)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심판의 날(부활의 날)을 믿는다. 그 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두 부활될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줄지어 설 것이다. 이 날은 정의의 최후 심판의 날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로서 천국과 지옥으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6) 신의 정명(定命)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신의 정명을 믿는다. 하나님의 정명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하고 또한 자신들의 선택과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다섯 가지 기둥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다섯 가지 기둥은 무슬림들의 종교적 삶의 뼈대이다. 이는 신앙의 중언(사하-다)과 예

배(쌀라), 희사(자카), 라마단 달의 단식(씨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메카로의 성지순례(핫즈)이다.

1) 신앙의 증언 (사하-다)

신앙의 증언은 다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슈하두 알라~알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합미단 라수~를라.”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알라)외에 신은 없으며 무합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첫 부분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어떤 동반자도 아들도 결코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이것을 입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무슬림임을 자임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다짐한다.

2) 예배 (쌀라)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데에는 단지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예



배시간은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적절적 교류의 순간이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면 내적 행복감과 평화를 느끼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사는 바른 하루 생활의 리

듬을 갖게 된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새벽 (파즈르) 예배
2. 낮 (주호르) 예배
3. 오후 (아스르) 예배
4. 저녁 (마그립) 예배
5. 밤 (이사) 예배

3) 희사 (자카)

자카는 무슬림들이 ‘궁핍한 사람에게 특정 양의 재물을 희사하는 것’을 말한다. 무슬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 중 약간의 둑을 희사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정화된다고 믿는다. 또한 모든 무슬림들이 의미적으로 자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빈 종교세라고도 부른다.

무슬림들은 자신이 낼 희사금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매년 1년 소득의 2.5%를 희사 한다.

4) 단식 (씨암)

매년 라마단 달(이슬람력 9월)이 오면 모든 무슬림들은 새벽의 일출 전부터 저녁의 일몰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 음식과 음료와 성 관계를 금한다. 라마단 단식의 주목적은 신앙심의 고양과 정신적인 자기 정화인데 이와 더불어 무슬림들은 육체적 정화와 건강도 얻게 된다. 짧은 기간이나마 스스로 세속적인 욕망들과 절연하고 인



내와 자아성찰, 예배와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단식으로 인해 무슬림들은 신앙생활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갖게 된다.

5) 성지순례 (핫즈)

매년 열리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꼭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매년 약 2~3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지구의 곳곳으로부터 메카로 와 국적이 다른 무슬림 형제들이 서로 만나 예배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 성지순례는 이슬람력 12월에 시작되고 순례자들은 이때 민족과 피부색, 계층과 문화의 구별이 없이 모두 바느질 하지 않은 흰옷을 두르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아바

카아바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아담에 의해 건



립된 제단인데 아브라함에 의해 재건되었다. 카아바는 경배를 위한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카아바 방향으로서 서 예배를 드린다. 이로써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슬림들의 예배 방향은 메카 한 곳으로 통일된다.

계시의 원천

꾸란과 순나는 무슬림들의 신앙과 실천의 원천이다.



1) 꾸란

꾸란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이다.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 의해 암송되었고 그의 동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전체 114장 중의 단 한 글자도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곡·첨삭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원형 그대로의 대단히 특별하고 기적

적인 성서이다.

꾸란은 모든 무슬림의 신앙과 실천의 첫 번째 원천이다. 꾸란은 교리, 예배, 법규, 삶의 지혜 같은 올바른 인간의 삶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조물주(하나님)와 피조물(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들과 이에 더해 정의로운 통치, 공정한 사회, 합당하고 도덕적인 인간 행동, 공평한 경제 체제를 위한 지침 등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순나

순나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의 방식이



자 언행들로 무슬림 신앙과 실천의 두 번째 원천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언행을 교우들이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 전한 전승의 기록을 하디스라고 부른다.

특히 다음 여섯 개의 하디스집은 매우 중요한 것들로 간주된다. 그것은 부카리, 무슬림, 티르미지, 아부 다우드, 나사이, 이븐 마자에 의해 집대성된 하디스들이다.

예언자 무함마드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

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메카의 꾸라이쉬 부족 하심 가문 출신으로, 삼촌 아부 탈립에 의해 양육되었다.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인이었다. 당시 메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랐고 성장한 뒤에는 신뢰 깊고 인자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민’(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는 그 당시 우상 숭배의 그릇된 신관이나 비도덕적인 사회의 타락상을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이를 혐오했다.

그의 나이 40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내려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첫 계시를 받았다. 계시는 그 후 23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꾸란은 그 계시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이다.

꾸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메카의 기독권층인 우상숭배자들은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들은 거의 모두가 메카 사회의 기준질서에 반하는 것이었다. 박해가 너무나 가혹하게 계속되자 622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주하라는 명을 내리신다. 이것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260 마일 떨어진 메디나라는 도시로의 이주인데, 이를 히즈라라고 부른다. 이 이주(히즈라)로부터 이슬람력이 시작되었다.

8년 후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와 그의 추종자들이 메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무슬림들을 박해하고 적대해 온 그들의 적들을 용서해 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화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지 100년이 못 되어 이슬람은 서쪽의 스페인과 극동 아시아의 중국까지 뻗어 나갔다. 이슬람의 빠른 팽창과 전파의 주요인은 이슬람 교리의 진실성과 간명성이다. 이슬람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요구하며 그 분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슬람 축제

1) 이둘 피뜨르

이슬람력의 10번 째 달의 첫째 날이면서,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의 축제를 이둘 피뜨르라고 한다. 전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둘 피뜨르는 무슬림들이 충실히 계



단식을 준수한 결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무슬림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날이다. 축제예배를 드리고 약 8일 동안 친척과 친지들을 방문하여 인사와 선물을 교환하며 명절을 보낸다.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신앙으로 맺어진 무슬림 형제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느끼고 공유하는 기회이며 그것은 물론 가난하고 불행한 비무슬림과도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이 축제 기간의 자선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공동선을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이둘 아드하

성지순례의 절정을 맞아 기념하는 이둘 아드하는 희생을 통한 축제이므로 희생제라고도 부른다. 이둘 아드하는 무슬림들의 최대 축제이자 명절이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예언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정신, 즉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던 순종하는 신앙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신앙심을 고취시킨다.

이날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남긴 전통에 따라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희생물로 삼는다. 희생된 동물의 고기

의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과 친척들과 나누어 먹는다.

결혼과 가족

가족은 이슬람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이다. 이슬람의 가족 체계는 남편과 아내, 아이들과 친척들의 권리에 공정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건전한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의 뼈대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은 혼신적인 행동과 관대함, 신앙심으로 가족간의 사랑을 키워간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족들이 제공하는 평화와 안전은 건강한 무슬림 사회의 바탕이다.



음식

무슬림들의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깨끗하고 허용된 인간의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어느 음식이든 적법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불결하고 해로운 것을 섭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를 허용하는 여유와 융통성을 갖고 절대적인 필요에 대처한다. 이러한 일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기로 정하신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 죽은 짐승의 고기나 동물의 피,
- 돼지고기, 모든 육식성 동물의 고기
-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는 고기

무슬림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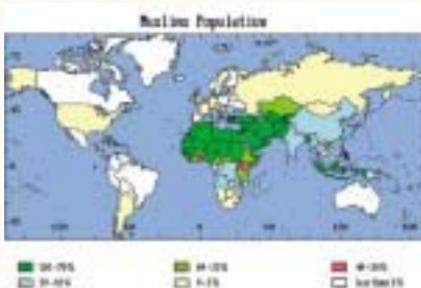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 한다.
-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 꾸란은 무함마드가 저술한 책이 아니다.
- 꾸란은 내용상 모순이 없으며 전 세계 모든 꾸란은 처음 계시된 원본과 한 치의 다름도 없다.
- 이슬람은 아랍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다.
- 이슬람은 보편적인 세계적 종교이다.
- 우리사회에서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이슬람교, 또는 이슬람으로 불러야 한다.



무슬림 인구의 분포

무슬림 세계는 전세계에 걸쳐 16억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그중 아랍권은 18%이고 비아랍권은 82%이다. 다음의 국가별 무슬림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들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국가 단위 백만명

인도네시아 (Indonesia)	196.2
파키스탄 (Pakistan)	157.5
벵골라데시 (Bangladesh)	127.4
나이지리아 (Nigeria)	80.0
터키 (Turkey)	72.8
이집트 (Egypt)	69.5
이란 (Iran)	68.8
에티오피아 (Ethiopia)	38.7
알제리아 (Algeria)	32.4
모로코 (Morocco)	30.3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29.6
수단 (Sudan)	29.3
이라크 (Iraq)	27.9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24.6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23.2
예멘 (Yemen)	20.6
坦자니아 (Tanzania)	18.3
시리아 (Syria)	16.6
말레이시아 (Malaysia)	15.4
나제르 (Niger)	13.6
말리 (Mali)	12.2

세네갈 (Senegal)	11.0
소말리아 (Somalia)	10.7
튀니지 (Tunisia)	10
카자흐스탄 (Kazakhstan)	7.1
리비아 (Libya)	5.6
요르단 (Jordan)	5.4
차드 (Chad)	4.9
팔레스타인 (Palestine)	3.7
모리타니아 (Mauritania)	3.1
쿠웨이트 (Kuwait)	2.6

비아슬람국가 단위 백만명

인도 (India)	154.5
중국 (China)	39.1
러시아 (Russia)	27.0
미국 (U.S.A.)	7.0
프랑스 (France)	6.0
독일 (Germany)	3.06
영국 (U.K.)	1.5
이탈리아 (Italy)	1.4
브라질 (Brazil)	1.0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1.0
캐나다 (Canada)	0.6
호주 (Australia)	0.3
한국 (South Korea)	0.1

참고문헌 : <http://www.islampopulation.com>

사랑과 자비와 박애

이슬람은 형제애와 사랑, 자비와 박애 정신을 강조한다.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깃들기)는 '네 자신을 사랑하듯 네 형제를 사랑하라', '믿는 자들이여!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지니 그것은 신체의 한 부분이 아플 때는 몸 전체가 고



통스러워지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하였다. 이슬람은 이슬람을 종교로 갖지 아니한 비무슬림들에게도 사랑과 관용과 공존과 평등(平等)을 가르친다. 이슬람은 전쟁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살생을 엄하게 금한다. 이슬람은 특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한 사랑과 동정, 원조와 박애정신을 무슬림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슬람법은 또한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용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스스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그것이 곧 신앙을 잘 실천하는 무슬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그들은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자선을 베풀고, 물분을 살기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랜드 선행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꾸란 3장 134절]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흑독한 박해와 크고 작은 전투를 겪으면서 관용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무슬림들은 자기 형제와 자매뿐 아

니라 타 종교인들과 민족들을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정직

정직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꾸란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명령하셨으니, 친척에게는 자선을 베풀고 나쁜 언행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하여 너희에게 교훈으로 하셨노라.’

[꾸란 16장 90절]

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와 인권

이슬람에 있어서 인권 존중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신앙과 직결된 불변의 원리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그가 무슬림이건 아니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종차별주의는 무슬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인종, 피부색, 언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꾸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에 우리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도록 너희를 민족과 부족으로 만들었느니라. 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자는 너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로다.”

[무란 49장 13절]

죽기 직전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메카로 순례 여행을 했는데, 이 때 10만 명의 무슬림 앞에서 행한 그의 마지막 고별연설은 인류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만큼 고귀한 것이 되었다.

인류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한 땃줄을 이어 받은 형제입니다. 이집인이 비아랍인들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 역시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인이 흑인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흑인도 백인에 비해 우월함이 없습니다.’ 또 예언자는 ‘자기의 형제를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벽히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였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일하기

이슬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기를 강조한다. 게으름은 허락되지 않는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물어 주신 것 재물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

[꾸란 28장 77절]

무슬림은 현세와 내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행복의 근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슬람의 원리와 무슬림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다음의 두 문장 안에 요약되어 있다.

1.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심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심

이것의 실현이야말로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올바른 신앙 행위라는 것은 너의 얼굴을 동쪽과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행위는 하나님과 최후 심판일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예언자를 믿고 친척들, 고마들, 불쌍한 사람들, 예비가 떨어진 여행자들, 구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경우에서 마끼던 재물을 주는 자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내어 악속을 했을 때 악속을 지키고 빙곤과 역경과 격렬한 전쟁 때의 인내하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장 177절]



꾸란에 언급된 25 명의 예언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올바른 길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이들을 예언자라고 부른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꾸란에서 이름이 언급된 예언자는 위의 25명이다.

이들 중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 다섯 명을 특히 중요한 예언자로 뽑는다.

하나님 (Allah)의 마지막 메시지인 꾸란에는 위의 25명의 예언자들 (Messenger)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설교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교도가 수염을 기르면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무슬림이 수염을 기르면 극단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겁니까?



서양 여성은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면 스스로를 학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데,



무슬림 여성은 그렇게 하면 왜 해방도어야 한다고 하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덮은 수녀는 하나님을 위에서 자기를 바치는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무슬림 여성은 똑같이 옷을 입으면 왜 억압받는 여인이라 하는가?

이슬람 성원 연락처안내



서울 중앙성원



부산성원



광주성원



전주성원



안양성원

성원	주소	전화
서울중앙성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02)793-6908
부산성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0-1	(051)518-9991
광주성원	경기도 광주시 역동 48-9	(031)761-3424
전주성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7-10	(063)243-1483
파주성원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421-9	(031)946-2110
안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양 5동 618-132	(031)444-7757
제주센터	제주시 노형동 938번지 정한 오피스텔 1208호	(064)712-1215
안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5	(031)492-1948
부평성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삽정동 574-19	(032)512-2612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94-7 번지, 2층	(062)872-5136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387-6번지	(053)523-2171
포천센터	경기도 포천구 소흘읍 송우리 107	(031)542-4696
동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삽정1동 279-9	
마천기어센터	서울시 송파구 기어동 186-26	(02)431-6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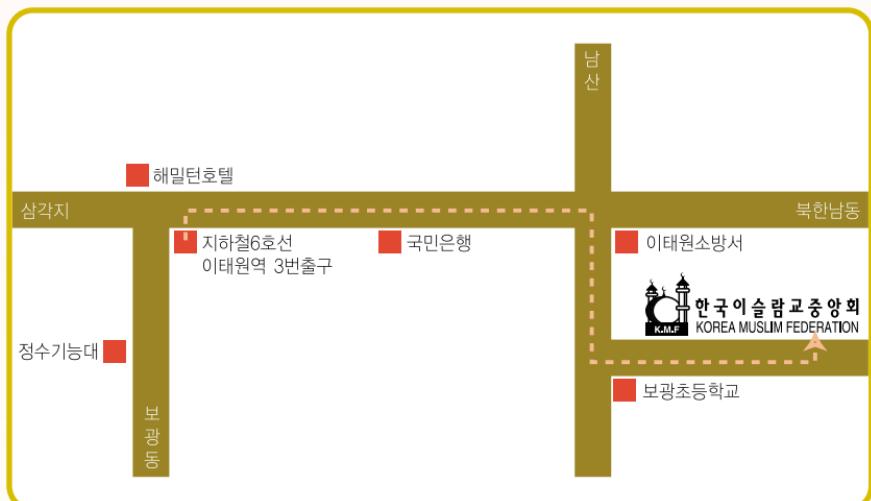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reaislam.org>
<http://www.islankorea.org>
<http://www.islankorea.com>
<http://www.islamjeju.or.kr>
<http://muslimcywodd.com>
<http://www.muslimkorea.net>
<http://www.quran.or.kr>
http://www.geocities.com/zubairkhan_99
<http://go.to/islamkorea>
<http://www.isuram.org/akkuram/index.html>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찾아오시는 길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③

이슬람은? What is Islam?

초판 발행일 : 2006.9

발행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Tel : 798-6908, 794-7307

Fax : 798-9782

Homepage : <http://www.korea.islam.org>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 الرياض
المكتب التعاوني للدعوة والإرشاد وتوعية الجاليات بالريوة
١٤٣٠ - م ٢٠٠٩

﴿ ما هو الإسلام؟ ﴾

« باللغة الكورية »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حقوق الطبع والنشر لعموم المسلمين